

무주반딧불축제 손님맞이 한창

개막식 3000여명 운집 성황 창작극·뮤지컬 등 감동 선사 9일까지 먹거리·행사 풍성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9.1.~9.9.)가 1일 무주를 등나무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재경, 재부 산, 대전무주군민회 회원 등 출향인들과 무주군민, 그리고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개막선언과 함께 개막작창작극 ‘반딧불이의 모험’, 뮤지컬 ‘세계의 왈츠’, 임창정 축하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창영사를 통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하는 환경축제로 뜻깊은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다”라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재밌는 축제,

반딧불과 어린이, 친환경에 집중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힘쓴 만큼 기본 좋은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과 의왕시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비롯해 무주실버태권도시범단 공연이 펼쳐졌으며 길놀이 무대를 무주 119안전센터에서 시작사거리, 전간도로, 군청 앞, 사람의 다리, 등나무운동장으로 크게 확대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주를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등나무운동장까지만 가던 행렬이 무주 읍내를 한 번 돌아주니가 축제 분위기도 살고 확실히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며 “올해는 대표축제 이름을 걸고 준비했다니 더 기대도 돼서 타지에 사는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보러오라고 연락도 했다”라고 전했다.

반딧불축제 공식마스코트인 포리와 아톰을 선두로 거리야단과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들, 다문화가족과 출향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11개국에서 온 글로벌태권도시범단원들이 함께 행진을 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잊지 못

할 풍경,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밤 10시부터는 무주를 남대천에서 안성면 두문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안성낙화놀이(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6호)’가 펼쳐졌으며 낙화를 배경으로 소망풍등 날리기도 진행돼 운치를 더했다. 또 ‘반딧불꽃놀이’가 개막일의 대미를 장식하며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대표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1일에서 9일까지 9일 간, 반딧불이 서식지를 비롯한 무주를 반딧불전통공예촌과 예체문화관,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열리며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디별 소풍, 반디나리관, 1박 2일 무주생태탐험, 소망풍등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문화생태관광축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어린이축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축제’로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는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지구환경과 인류애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든 환경축제로 20여 년째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모사업 따내기’ 피나는 노력 결실 맺어

장수, 신규사업 11개지구 선정 총사업비 156억원 확보 쾌거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11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신청방법으로 선정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장수군은 1년 전부터 민·관이 힘을 모아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역량 교육과 소액사업, 현장포럼 등 단계별로 이수사항을 준비해 왔다.

또한 발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모사업 준비를 한 결과 2019년도 신규사업에 11개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의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이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마을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장계면과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40억원씩 총 80억이 투자되고, 농촌다움복합사업은 장계면 금덕리에 20억, 마을만들기 사업은 6개 마을(장수를 송학골, 산서면

구암·봉서·마평, 계남면 덕곡·읍신)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과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별로 5억원씩 총 3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농촌지역내 고령자들을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돼 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하게 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 할 것이고, 그동안 노력해준 주민 및 추진위원회,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한 사업 추진과 함께 2020년도 신규사업 공모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장수군의회(의장 김중문)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승인 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3,38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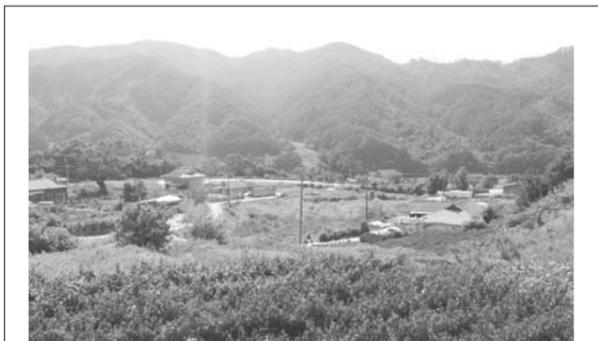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를 구성해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장수군의 향후 20년간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사업을 선점함으로써 「합장수」 건설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으며, 장수시의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계북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등에 대해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날 장수군의회는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감용문 의원을 선출했으며,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장수군 관내 24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천천면 관산마을이 전북도의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관산마을 전경

관산마을 경관 조성 1억6000만원 뚫는다

농산촌가꾸기 공모 선정 장수 천천면 용광리 위치

장수군 천천면 관산마을이 전북도의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라농정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꽃과 열매가 어우러진 찾고 살고,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드는 목적으로 매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내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

모사업 신청을 받아 천천면 용광리 '관산마을'을 선정, 2019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관산마을은 2007년 산촌생태마을 지정, 2016년 체험휴양마을 지정, 2017년 생생마을 사후관리마을로 지정되는 등 주민 소득증대와 산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현정 관산마을 이장은 “이번 농산촌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진입 가로수와 주민쉼터, 집 마당에 살구나무를 식재해 살구향이 가득한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 품질향상·활성화 머리맞대

농가·생산·판매업체 한자리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인삼재배농가, 홍삼가공업체, 홍삼판매업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홍삼 품질향상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워크숍을 산악초타운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진안홍삼 현황과 우수성 홍보, 마케팅·판매 전략, 진안홍삼에 관한 정책 설명, 토론회와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진안홍삼은 홍삼연구소의 성분 분석을 통한 군수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홍삼한방플러스사업단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 홍삼연구소의 기술개발 등 군·사업단·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돼 인삼·홍삼 관련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진안홍삼 판매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급감 추세였으나 진안군의 전폭적인 육성사업에 힘입어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접어들어 국내외 홍보관과 위탁 판매점을 포함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모든 매장을 군수품질인증품, 명인·명품, 홍삼연구소 기술개발품, 특허품만을 취급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 성과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 수상, 사상 최초 미국 수출 등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삼한방플러스사업단 이사장인 최성용 부군수는 “진안홍삼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계기는 질 좋은 원료삼을 생산하는 생산농가와 품질향상에 기여한 가공업체, 그리고 전국에서 진안홍삼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안홍삼 판매업체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개최

2018 무주군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이 지난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농촌지역개발 발전방안의 해법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어 충남대 김정연 교수를 좌장으로 인하여 변병설 교수, 전주대 송관인 교수, 전라북도 농촌활력개발과 박훈 사무관, 전북연구원 장성화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농촌지역개발의 현재와 미래, △정책변화에 따른 추진방안, △농촌지역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건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맞춤형 개발을 진행해 가는 것”이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이 자리가 지역의 역할과 사업추진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인삼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진안군은 최근 인삼물 수요가 많아지면서 산내 내 불법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인삼물 불법채취 계도원 38명을 추가 선발했다.

그동안 불법채취 계도원으로 37명이 활동했으나 이번 추가 선발로 관내 총 75명이 배치돼 가을철 인삼물 불법 굴·채취 등 산내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관상식물 등 인삼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산내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인삼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보드 펜션/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영국지리 요원 지령중 휘트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령중 휘트 연)김테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	---